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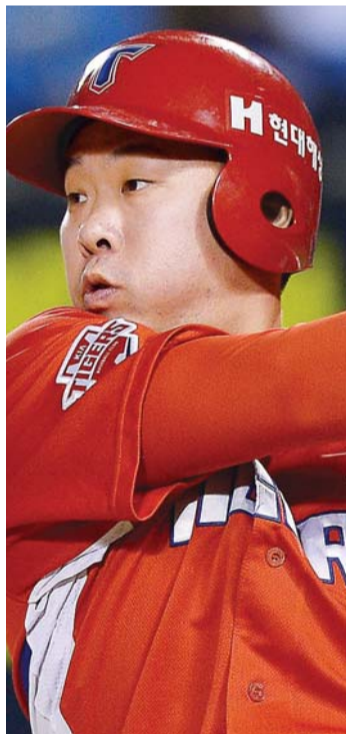
김기태 감독·김주찬 “올해는 마지막날까지 야구 하겠다”



“2019 프로야구 응원해 주세요” 2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에서 2019 KBO 리그 슬로건인 ‘함께하는 야구, 공정한 야구’를 선포하고 있다. 2019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에 10개 구단 감독을 비롯해 SK 이재원-한동민, 두산 유희관-정수빈, 한화 이성열-정우람, 키움 김상수-박병호, KIA 김주찬-안치홍, 삼성 강민호-최충연, 롯데 손아섭-전준우, LG 김현수-이형중, KT 유한준-이대은, NC 나성범-양의지 등 각 구단의 주장과 대표선수 20명이 한 무대에 올라 2019 시즌에 임하는 각오를 발표하며 팬들을 맞이했다. /연합뉴스



양현중



안치홍



김주찬

2019시즌 첫 승을 위해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양현중이 출격한다. 상대는 LG 트윈스 윌슨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최지강이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0.413의 타율과 함께 23타점을 올린 최지강은 팀의 청룡기 우승 등에 기여를 하며 수상자로 선정됐다.

동성고 김재택 감독은 “중장거리 타자로 어찌고 좋고 성실한 선수다. 야구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한다”며 “지난해 4할 타자로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 했다. 지난 시즌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올 시즌에도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상식은 24일 오후 1시 30분 SK와이번

다. 2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2019시즌 개막전을 지휘하는 KIA 김기태 감독은 예고대로 양현중을 개막전 선발로 호명했다. 원정 경기로 시즌을 여는 LG 류중일 감독은 윌슨을 앞세워 챔피언스 필드를 찾는다.



스와 KT 위즈와의 경기에 앞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23일 개막...KBO 미디어 데이

KIA 홈에서 양현중-LG 윌슨 선발 대결...이범호, 부상에 선발 제외 야수진 세밀한 플레이 보완...루키 하준영·이준영 마운드 기대주 부상

김 감독은 지난 16일 시범경기에서 '미리 보는 개막전'을 치렀다.

양현중이 선발로 마운드에 섰고, 김주찬(1루수)-안치홍(2루수)-최형우(좌익수)-나지완(지명타자)-해솔베이어(중견수)-이명기(우익수)-한승택(포수)-최원준(3루수)으로 타선이 구성됐다.

17일에는 제이콥 터너와 김민식이 배터리를 구성했다.

'개막전 라인업'을 미리 공개했던 김 감독은 미디어데이에서 다시 한번 양현중의 이름을 언급했다.

지난 시즌 맞대결 성적에서는 윌슨이 앞섰다.

KIA전 5경기에 나온 그는 2.65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1패를 기록했다.

양현중도 LG전에 4차례 출격해 1승은 챙겼지만 7.77의 평균자책점으로 3패를 남겼다.

지난해 7월 8일 맞대결에서도 윌슨이 7이닝 5피안타 4사사구 3탈삼진 1실점으로 승자가 됐다.

하지만 양현중은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개막전에 맞춰 최고의 컨디션을 준비했다. 시범경기 두 차례 등판을 통해 실전 점점도 완벽하게 끝냈다.

양현중의 뒤를 지키는 야수진도 든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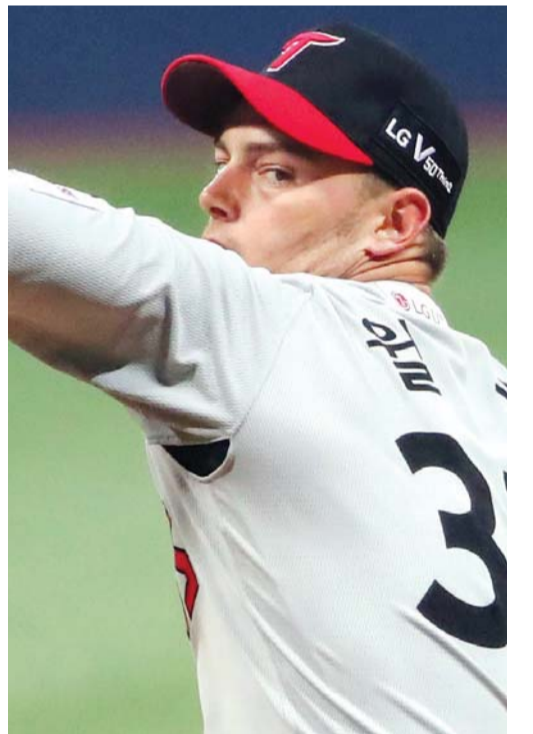
이범호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주전 야수진이 건재하다.

여전한 화력에 수비도 한층 탄탄해졌다. 체중 감량에 성공한 유격수 김선빈을 필두로 KIA는 캠프를 통해 수비 세밀함을 더하면서 시범경기를 안정감 있게 풀어갔다.

걱정 많았던 마운드에서도 좌완 듀오 하준영·이준영이 새로운 전력으로 떠올랐고, 고영창도 캠프의 기세를 이어 2019시즌 반전의 카드가 됐다. '마무리'로 낙점된 김윤동도 연투 테스트와 함께 시즌 준비를 끝냈다.

한편 미디어데이를 통해 김기태 감독과 '캡틴' 김주찬은 '마지막날까지 야구를 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김기태 감독은 "겨울에 준비 많이 했다. 김주찬 캡틴, 안치홍 선수와 더불어 모든 선수가 하나가 아닌 협동심을 발휘해서 마지막까지 야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팬들에게 즐거움, 웃음을 주는 맛있는 KIA 타이거즈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LG 선발 윌슨

김주찬은 "지난해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 안 나서 실망 많이 했는데 캠프 때부터 모두 준비 열심히 했다"며 "야구 끝나는 마지막까지 KIA 타이거즈가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다"고 우승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동성고 내야수 최지강 'SK 야구 꿈나무 장학생'

광주 동성고 내야수 최지강(3년·사진)이 SK 야구 꿈나무 장학생에 선정됐다.

한국야구소프트볼협회는 21일 "SK 야구 꿈나무 장학생으로 초·중·고등부 각각 4명씩 모두 12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최지강이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0.413의 타율과 함께 23타점을 올린 최지강은 팀의 청룡기 우승 등에 기여를 하며 수상자로 선정됐다.

동성고 김재택 감독은 "중장거리 타자로 어찌고 좋고 성실한 선수다. 야구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한다"며 "지난해 4할 타자로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 했다. 지난 시즌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올 시즌에도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상식은 24일 오후 1시 30분 SK와이번

한화 새 홈구장은 '한밭종합운동장'

2만2000석 규모 2025년 개장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의 새 홈구장(가칭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입지가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을 통해 "한밭종합운동장이 야구장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면적이고 도시철도 2호선 개통(2025년)에 따른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고 기존 부지를 활용해 사업 실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밭종합운동장은 한화이글스 현 홈구장인 한화생명이글스파크 바로 옆에 있다.

새 야구장은 2025년 2만2000석 규모로 개장한다. 1360억원이 투입된다.

대전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원도심 활성화, 보문산권 관광벨트를 연계해 조성한다는 방침이

다.

올해 7월까지 야구장 형태, 규모, 상업시설, 편의시설, 운영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2020년 말까지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밟아 2021년부터 설계와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1964년 개장한 한화생명이글스파크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야구장으로 꼽힌다.

관중석 규모가 1만3000석에 불과한 데다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협소해 연간 6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허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건강, 문화, 예술, 공연, 쇼핑이 어우러진 야구장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동구 대전역 주변,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대덕구 신대동, 유성구 구암역 인근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새 야구장 후보지로 검토해 왔다. /연합뉴스

이치로 은퇴식 같은 교체 세리머니

4회 말 공수교대 때, 시애틀 매리너스 야수진은 3루 파울 라인 앞에 멈춰 섰다. 페어 지역에는 우익수 스킵 이치로(46·시애틀)만이 서 있었다.

곧 교체 사인이 나왔고, 이치로는 3루 더그아웃을 향해 뛰어왔다. 20일 일본 도쿄돔에서 펼쳐진 이치로를 위한 세리머니였다.

이 세리머니를 기획한 이는 스코트 서비스 시애틀 감독이었다.

이치로는 20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오 랜드 애슬레틱스와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9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4회 말 이치로는 교체됐다. 하지만 짧게나마 '이치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다.

시애틀 동료와 서비스 감독은 3루 더그아웃 앞으로 나와 이치로와 포옹했다. 서비스 감독은 일본 취재진에 "이치로에게 모자를 벗고 팬들에게 인사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며 "이치로는 그럴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전했다. /연합뉴스